



주말 폭염 속 강풍… 하늘길 차질·시설물 파손

제주 산지·서쪽 지역 중심 초속 20m 강한 바람
급변풍 제주공항 100편 넘게 결항에 지연·회항
나무 쓰러지고 햇볕가리게 뿔혀… 30여 건 피해

지난 주말 폭염 속 강풍이 불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고 각종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다.

12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까지 제주도 산지와 제주시 서부·북부·중산간, 서귀포시 서부·남부·중산간, 추자도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날 제주도 산지와 한라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었고, 그 밖의 지역에도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주요 지점 1시간 최대 순간풍속(초속)은 한라산 삼각봉 28.9m, 세별 오름 21.9m, 고산 19.6m, 대흘 16.3m, 섕달 15.7m 등이었다.

제주국제공항에도 강풍 경보와 급변풍 경보(이륙·착륙 방향)가 내려지면서 제주를 오가는 하늘길이 차질을 빚었다.

한국항공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하루 제주공항을 오갈 예정인 항공편 478편(국내선·국제선) 가운데 이날 오후 3시 기준 국내선 항공기 103편(출발 48편·도착 55편), 국제선 항공기 2편(출발 1편·도착 1편) 등 모두 105편이 결

항했다. 또 국내선 74편(출발 37편·도착 27편), 국제선 11편(출발 5편·도착 6편) 등 85편이 지연 운항했고, 홍콩과 중국 다싱, 마카오에서 출발해 제주에 들어오려던 국제선 항공기 3편이 회항했다.

제주공항은 이날 오전 7시 33분을 기해 ‘체류객 지원 주의 단계’를 내려 대응에 나섰다. 주의 단계는 결항편 승객이 3000명 이상 발

생하면 내려진다.

강풍에 나무가 쓰러지고 햇볕가리가 뿔히고 중앙분리대가 파손되는 등 피해도 발생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오후 5시 기준)까지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31건이 발생해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이날 오전 제주시 애월읍과 삼양1동에서 각각 건물 외벽마감재와 외장재가 떨어져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통제하는 등 안전 조치가 이뤄졌다. 전날에는 제주시 삼도1동과 연동에서 각각 도로와 공원에서 나무가 쓰러지거나 연동과 노형동

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떨어지고 중앙분리대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또 같은날 제주시 삼도1동의 한 횡단보도에 있던 대형 햇볕가리가 하단이 뿔혀거나 노형동과 아라1동에서도 햇볕가리가 흔들려 안전 조치됐다.

이와 함께 제주도남쪽먼바다, 제주도앞바다, 제주북쪽앞바다, 제주도동부앞바다, 남해서부서쪽먼바다에도 강풍과 높은 물결로 인해 풍랑특보가 내려져 이날 제주와 진도·추자도를 잇는 일부 여객선이 결항되기도 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제주에 강풍이 불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12일 오전 제주공항에서 체류객들이 대기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피서철 시작되자 해안 물놀이사고 잇따라

파도 휩쓸리거나 다이빙하다 다쳐 구조·병원 이송
제주소방, 휴가철 야외활동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이 시작된 가운데 제주 해안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2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와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1시 49분쯤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코난해변에서 20대 관광객 A씨가 튜브를 타고 떠내려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인근에 있던 안전요원에 의해 구조됐으며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2시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해상에서 제트스키가 뒤집혀 10대 관광객 2명이 파도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

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갯바위에서 150m 떨어진 지점에 있던 이들은 인근 서핑객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같은날 오후 3시 9분쯤에도 중문색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서핑을 하던 중 조류에 휩쓸려 표류하던 40대 관광객 B씨가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다이빙하다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 9일 오후 2시 12분쯤 제주시 도두2동 사수포구에서 물놀이를 하던 10대 C군이 다이빙 중 머

리를 돌에 부딪혀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도내에서 발생한 수난사고는 245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68건에서 2024년 80건, 지난해 97건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8건(52.2%)이 7~9월에 발생했다.

이에 휴가철 야외활동 안전사고 주의보도 내려졌다.

제주소방과 해경은 “물놀이 시에는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음주 후에는 입수와 위험구역 출입을 자제하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박소정기자

3기 진화위 출범 후 제주 20건 진실규명 신청
인권침해·조작의혹 15건 집단수용시설 5건 등

제주특별자치도는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지난 2월 공식 출범한 후 그동안 도내에서 진실규명 요구 신청 20건을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신청 20건 가운데 15건은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 나머지 5건은 집단수용시설 관련 사건이다.

진화위는 제주지역 신청 사건을 포함해 전국 각 지자체가 접수한 진실 규명 사건에 대한 검토와 현지 조사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조사관들이

제주를 방문해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한다. 또 제주도는 조사 장소와 필요 물품을 제공해 진화위가 제주에서 원활히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3기 진화위를 상대로 한 진실 규명 신청은 오는 2028년 2월 25일까지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항일 독립운동 및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권위주의 통치기 인권침해 및 조작 의혹 사건 등이다. 4·3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진상규명이 이뤄진 사건은 제외된다.

이상민기자

도, 수소전기차 추첨 결과 오류 ‘해프닝’

39명에게 당첨 여부 잘못 안내

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신청자에게 선정된 것으로 잘못 전달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수소전기차 민간 보급사업 추첨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일부 신청자에게 당첨 여부가 잘못 안내됐다. 제주도는 오류를 확인하고 당일 바로잡았으며 해당 신청자들에게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했다.

제주도는 잘못 안내된 39명에게 정정 문자를 발송하고, 이 가운데 34명에게는 우선순위로 오류 발생 경위와 실제 추첨 결과를 설명하며 사과했다. 통화가 닿지 않은 나머지 5명에게는 계속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오안내 발생 경위와 정정 조치를 공개하고, 앞으로 추첨 결과 입력·게시 과정에서 담당자간 교차 확인 절차를 강화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소범기자

풍랑특보 해상서 표류 中 화물선 구조

해경 “안전해역으로 예인 후 투묘 조치”

풍랑특보가 내려진 서귀포시 해상에서 표류중인 4000t급 중국 화물선이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12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20분쯤 서귀포 강정민군복합항 남쪽 약 22km 해상에서 15명이 승선한 중국 선적 화물선 A호(4675t·승선원 15명)가 스크루에 부유물이 감겨 표류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당시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됐고 태풍 ‘바비’의 간접영향으로 기상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돼 안전과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A호를 안전 해역으로 예인하기

로 결정했다. 5000t급 경비함정을 현장에 투입한 해경은 같은날 오후 1시 30분쯤부터 A호에 대한 예인을 시작해 약 2시간 만인 오후 3시 25분쯤 화순항 남동쪽 7.4km 해상으로 옮겨 투묘(배가 정박하기 위해 닻을 내리는 것) 조치했다.

해경은 선장에게 닻 끌림 등에 유의해 안전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으며 기상이 호전되면 A호의 밑바닥을 확인하고 부유물을 제거할 예정이다.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투묘 중인 A호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집중관제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소정기자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

국립종자원 인증'무병묘'생산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장원농장

< 무병묘 >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2026년 무병묘 예약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1,500원 지원**
인증서가 있는 것만 무병인증묘입니다.

< 도내 / 국내육성품종 >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하례조생**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 포트묘 >

도내 최대 <포트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궁천 / 흥진 / 금굴
유라조생 / 하굴 / 팔삭 / 자몽 / 레몬 외 다수 품종

종자임등록번호 제18-제주-2022-20-02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100-29 / 조천읍 선흘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실시 완료업체

☎ **010-4450-4316**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장원농장